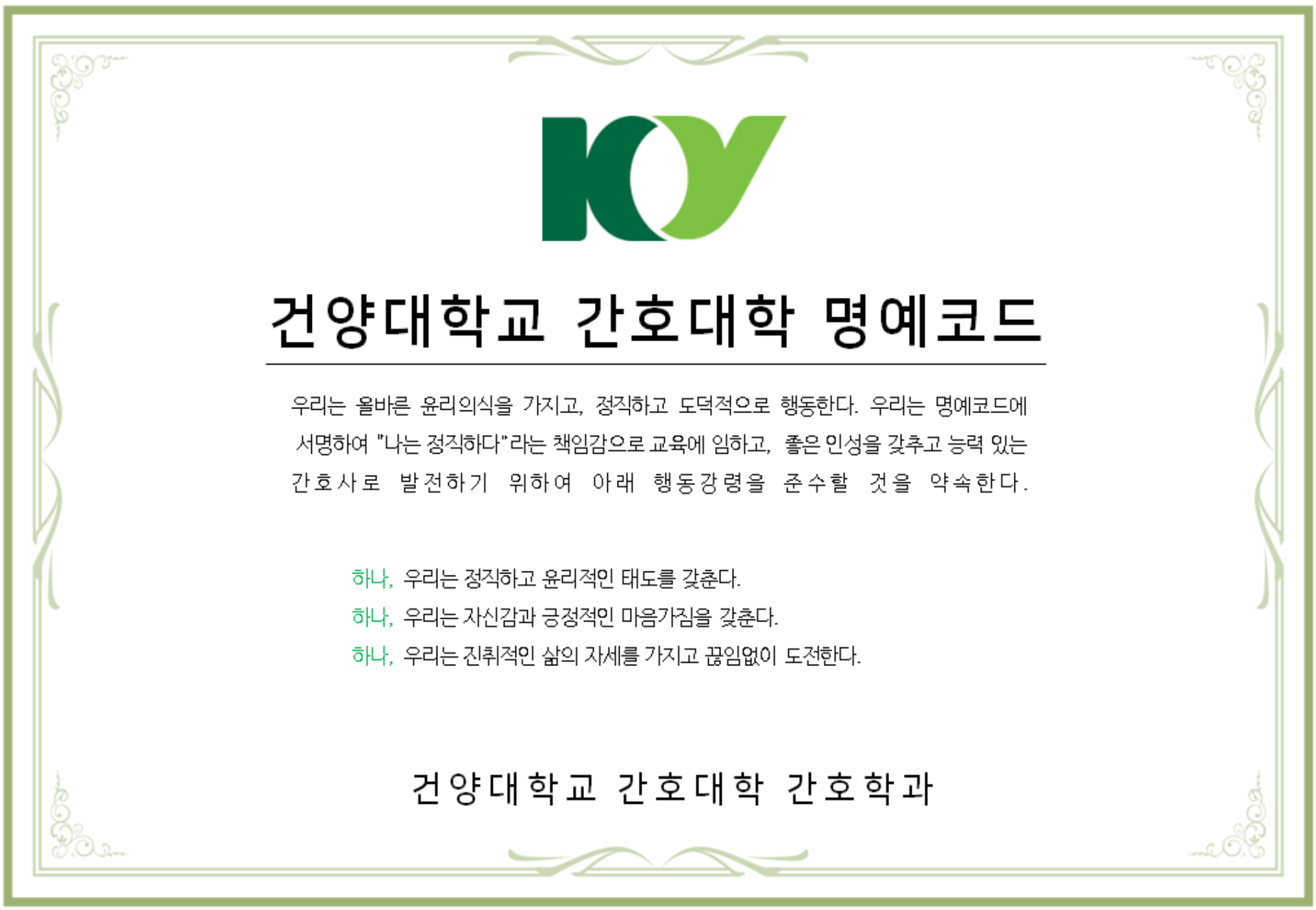
간호소식DREAM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제 23대 학생회 두드림

제 3호
2017-09월

인사말 & 명예코드 소개

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제 23대 학생회 두드림 입니다^^. 학우 여러분들! 방학은 알차게 보내셨나요? 아쉬운 방학을 뒤로 하고 벌써 개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우리 건양대학교 간호대학이 간호대학 신축건물에서 수업을 하게 되어 적응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학우 여러분들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내시길 바라며 학우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고자 간호대학의 9월 소식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소식지는 새로운 건물에서 학기를 시작하며 보다 알차게 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내용은 명예코드, 신축건물 소개, 간호대학 학우의 방학 중 알찬 여행, 후배에게 한마디, 2학기 행사, 신임교수님 인사말, 가로세로 낱말퀴즈로 구성하였습니다. 벌써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소식을 보러 가볼까요?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명예코드

우리는 올바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한다. 우리는 명예코드에 서명하여 "나는 정직하다"라는 책임감으로 교육에 임하고, 좋은 인성을 갖추고 능력 있는 간호사로 발전하기 위하여 아래 행동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하나, 우리는 정직하고 윤리적인 태도를 갖춘다.
하나, 우리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춘다.
하나, 우리는 진취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한다.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우선, 명예코드에 관한 소개입니다. 새로운 건물에 온 만큼 다시 한 번 몸과 마음가짐을 다잡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두드림 학생회가 건양대학교 간호대학의 명예코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간호대학의 명예코드는 정직, 도전,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 내용은 우리 모두가 서명으로서 동의한 명예코드이며 간호대학생, 우리 모두의 것 입니다. 이 명예코드가 진정한 우리의 것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명예코드를 항상 마음 속에 지니고, 실천하신다면 간호대학의 위상과 여러분들의 발전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명예코드는 간호학과 지정 강의실에 부착할 예정이오니, 모두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고 함께 발전의 길로 나아갑시다!

신축건물 소개

저희 간호학과가 이번 학기부터 새로운 건물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건물이라 몇 층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래서 학생회가 이번 소식지를 통해 신축건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잘 모르실 것 같은 시설 위주로 준비하였으니 잘 기억해서 알차게 사용합시다^^!



1. PBL실 (F2, F3)
2층과 3층에 위치한 PBL실 입니다. 2층과 3층에 각각 4개씩 위치해 있으니 시험기간 혹은 조별 과제 등으로 공간이 필요하실 때 사용하면 좋겠죠?



2. 간호학관 내 학습실 (F7)
청림학사, 담곡학사, 명곡 의학관처럼 신축건물도 학습실이 있습니다!
학습실은 9월 7일 목요일 부터 사용 가능한 상태이며 간호학관 7층에 위치해 있고 총 188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 탈의실 (F6)
세 번째로 탈의실입니다! 탈의실은 현재 6층, 동아리실 옆에 위치해 있으며 옷을 갈아입으실 일이 있을 때 화장실에서 불편하게 갈아입을 필요 없이 탈의실에서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4. 치아힐링룸 (F2~F7)
2층부터 7층까지 각 층에 위치해 있는 치아힐링룸 입니다! 양치 해야 하는데 화장실이 북적일 때, 혹은 가볍게 세수만 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5. 학생회실 (F6)
학생회실 입니다. 학생회실은 신축건물 6층에 위치해 있으며 물품대여나 학생회에 용무가 있을 때 자유롭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6. 시뮬레이션 룸 & 디브리핑 룸 (F6)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룸 및 디브리핑 룸입니다! 시뮬레이션 룸은 4학년 때 활용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에서 핵심술 등을 이용하여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 수업을 하는 곳입니다!

학년별 지정 강의실 안내

구분	1반	2반	3반
1학년	509호	611호	612호
2학년	301호	302호	508호
3학년	202호	303호	203호
4학년	202호	303호	203호

간호대학 학우의 방학 중 알찬 여행

이번에는 여름방학 때 공지하여 신청자를 받은 간호학과 학우들의 알찬 여행 소식입니다. 정말 알찬 여행을 다녀오셨더라구요! 여러분도 각자의 알찬 방학을 보내셨겠죠?^^ 그럼 두 분의 방학 중 알찬 여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탐방 목표** : 훼손문화재 복원방법 및 관리체계
- **탐방 국가 및 도시** : 이탈리아 (로마, 나폴리, 쏘렌토, 아말피, 피렌체, 베니스)
- **탐방 기간** : 2017. 07. 02 - 2017. 07. 15 (상공회의소 글로벌인재육성 프로그램)
- **탐방 비용** : 항공료(1,175,700) + 숙박비(약 100만원) + 교통비(432,520) + 식비(374,840) + 유심(39,290) + 로마통합권(56,627) + 바티칸투어(50200) + 두오모(60089) + 우피치(68,029) + 보험(9,180) + city tax(138.300) = 약 340만원
- **기억에 남는 점** : 탐방 전 이탈리아 문화재 복원 학교인 ISCR에 방문면담을 몇 번이나 요청했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어 방문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 하지만 ISCR을 방문하는 대신 현지인들에게 추천을 받아 찾아간 아말피에서 우리는 이번 탐방 중 가장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 직접 아말피 해변을 가보니 그곳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 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맑은 물과 깨끗한 모래사장이 잘 지켜지고 있었던 것을 보고 이탈리아는 문화재뿐만 아니라 자연도 잘 보존한다는 것에 다시 한 번 우리나라를 돌아보며 각성하였다.
- **후기** : 우리가 이탈리아에서 문화재 복원체계에 대해 조사하며 인상 깊었던 점은 체계적 커리큘럼으로 문화재복원전문인을 따로 양성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피렌체에서 세뇨리아 광장에 있는 미켈란젤로 상을 복원 중인 분을 만났는데 그 분 역시 문화재 복원전문 교육과정을 5년 동안 받으셨다고 했다. 정치적, 경제적 요인에 더 치우쳐 문화재 복원인력의 질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이탈리아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체계를 보고 배워야 할 것이다. 처음으로 가보는 자유여행에 실수도 많았지만 친구들과 잘 이겨내며 잊지 못할 추억도 쌓고 탐방목적에도 충실했던 뿌듯한 이주의 여정이었다

"격려해주셨던 간호학과 교수님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6802008 김기연





- **탐방 목표** : 유럽여행을 처음 가보기 때문에 다양한 도시를 보고 즐기고 맘에 드는 도시 정하기
- **탐방 국가 및 도시** : 로마-피렌체-베네치아-빈-프라하-뮌헨-인터라켄-파리-바르셀로나-마드리드
- **탐방 기간** : 2017. 06. 29 – 2017. 07. 19 <패키지투어(인솔자 포함, 도시만 지정 도시 안 자유일정)>
- **탐방 비용** : 패키지 상품가 352만원+35만원(계약금)+ 유레일 예약 30만원+ 공동경비 약 30만원+ 융프라우요흐 등반열차 약 20만원+ 용돈 240만원= 총 700만원 조금 넘었습니다.(숙소 베드 팁은 달러로 따로 챙겨갔습니다.)
- **기억에 남는 점** : 많은 도시들을 갔지만 아무래도 제일 오래 머물렀던 로마가 기억에 남았다. 로마는 웅장한 건축물인 콜로세움, 베드로 성당 등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그리스 로마신화를 나의 어렸을 때 접했었기 때문에 바티칸 투어의 건축물들의 설명도 더 잘 이해가 되고 재미있었던 것 같다.
- **후기** : 밤에 위험하다고 해서 걱정 많이 했었는데 저는 새벽에도 잘 돌아다니고 물건을 도난 당하는 일은 없었어요. 초반에 생각보다 돈을 많이 안 써서 마지막엔 쇼핑을 많이 했어요! 텍스 리펀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니까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제학생증 발급해가시면 할인되는 게 꽤 있어요! 융프라우에서 감기 걸려서 힘들었을 때 빼고는 도시마다 풍경이 다르면서 예뻐서 하루에 2-3만보씩은 걸어 다녔어요. 생각보다 영어가 안 통하는 데가 많았어요. 각 도시마다 유명하다는 집이랑 먹을 거는 다 챙겨먹고 많이 걸어 다니시면서 보는 거 추천 드려요.

16802091 윤주숙

후배에게 한마디

이번에는 후배에게 한마디! 입니다. 2학기를 맞이하여 4학년은 3학년에게, 3학년은 2학년에게, 2학년은 1학년에게 한마디씩 도움이 되는 말을 전달해주었습니다. 각각 학년별로 정말 필요한 부분을 담고있으니 후배에게 한마디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학년이 3학년에게

처음 하는 블록 강의와 실습도 아닌데 여전히 힘든 3학년 후배 여러분들께.. 저도 그 시절을 겪어봤지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버티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내일 할 일을 충실히 하다 보면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취업시즌을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자기가 가장 가고 싶은 병원의 자기소개서를 한 번 미리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모의면접을 해주는데 대충 하지 말고 열심히 준비해서 임하길 바래요! 병원 이것저것 따지고 넣지 말고 우선 괜찮은 곳 있으면 다 넣어보세요.. 합격하고 고민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곧 최고학년이 될 텐데 바쁘더라도 책임감을 갖고 학과행사에 참여해서 후배에게 모범이 되면 좋겠네요. 이번 학기도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응원할게요! 화이팅~~



3학년이 2학년에게



2학년 후배 여러분~ 1학년에 비해 많아진 과제, 시험 적응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저도 그때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적응도 되고, 지식도 많이 쌓이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공부는 모든 과목 열심히 하시겠죠? 저는 공부에 대해 말씀을 해드리는 것 보다는 2학년 때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해외봉사, 일본연수 등 이런 학과 행사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3학년 겨울방학이 되면 토익 준비, 자기소개서 등으로 인해 바빠서 신청하기가 2학년 때 보다는 더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토익 2학년까지는 스페셜 토익도 H4C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학년이 되면 정규토익만 되고, 장학금도 거의 10만원 정도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토익을 어느정도 해놓으셔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힘드시겠지만 열정 잃지 마시고 항상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2학년이 1학년에게

1학년이니 만큼 친구들과 많이 놀러 다니면서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고 친구들이 경쟁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길을 함께 걸어가며 서로 돕고 돕는 동반자라고생각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취미생활을 하나씩 만들어보세요~ 틈날 때마다 책을 많이 읽고 봉사도 미리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학년 때 기본적으로 배우는 과목들이 학년이 올라와도 다 연관성이 있으니까 기초부터 탄탄히! 공부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배우는 과목을 충실히 해야 이후에 배우는 과목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시험성적이 한 번 좋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지나고 보니 정말 중요한 과목들이 많았어요. 지금 열심히 해두면 2학년 돼서 좋을 거에요!



2학기 행사

2학기 행사 일정

9월 : 한솔 대동제 및 체육대회(19일~21일)

10월 : 국가고시 D-100행사 (19일 예정)
대전 메디컬 캠퍼스 체육대회
중간고사 응원 간식 행사

11월 : 제 19회 학술제 & 제 9회 홈커밍데이 (10일 예정)
헌혈릴레이

12월 : 졸업메달 수여식(4일예정)
종강총회 및 정·부회장 선거 (7일)
기말고사 응원 간식행사

실습복 물려주기 캠페인

신청기간
☞ 14학번은 2017년 10월 말까지
☞ 16학번은 2017년 11월 말까지

신청방법
☞ 학생회 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대상
☞ 올해 졸업하는 14학번
2018년부터 실습하게 될 16학번

1004 Day

1004 Day 의미
☞ 매년 10월 4일 간호학과 학생들의 헌혈증을 기부 하는 날

1004 Day 목적
☞ 헌혈증이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1004 Day 기부방법
☞ 신축건물 2층 소통함
☞ 학생회 임원에게 직접 전달하기

신임 교수님 소개

여러분 ~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교수님이 두 분이나 계시답니다!! 벌써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앞으로 저희와 함께 수업하실 정유미 교수님, 배익렬 교수님이십니다. 건양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유미 교수님



2017년 2학기부터 건양대학교 간호학과에서 강의를 하게 된 정유미입니다.

설레임 반 기다림 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학회지로 인사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뛰어난 간호학도 양성과 간호학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건양대학교와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산병원에서 근무 하면서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일리 노이 주립대학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Validation of Korean Version of Parental Depression Literacy Scale Among Korean American Parents" 주제로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대학 에서 박사 후 과정을 통해 당뇨 관리와 운동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저의 연구 관심은 청소년 우울증 이해 정도 (depression literacy) 증진과 만성질환의 자가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입니다. 앞으로 간호학 발전을 위해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 하고, 임상 실무와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익힌 언어능력과 경험으로 건양대학교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각자의 위치에서 빛을 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건양대에서 여러분과 만나고 동행하게 되어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며, 곧 강의실에서 만나 뵙길 고대하겠습니다.

배익렬 교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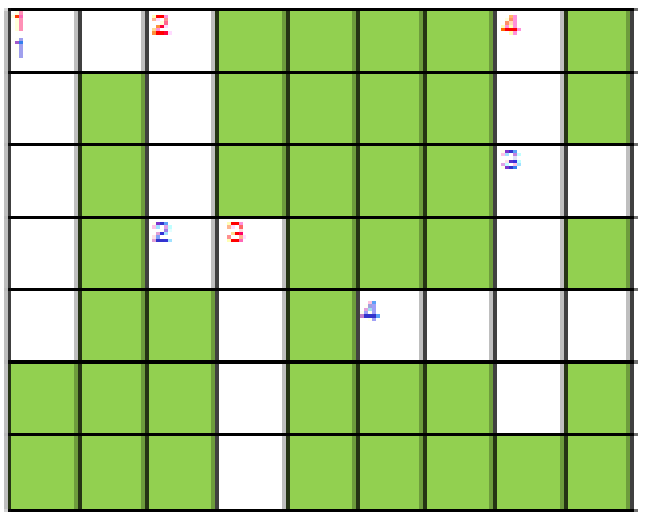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2017년 9월부터 건양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조교수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된 배익렬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대생으로 지내다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 간호학을 접하게 되었고, 남자간호사로서 수술실과 마취과에서 임상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간호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공부를 하다 보니 교육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2011년부터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관심 연구주제는 스트레스 회복으로 그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어색하고 부족하지만 간호학을 먼저 경험하고 공부한 선배로서 여러분과 많은 것을 소통하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지식뿐만이 아닌 많은 추억을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간호학을 전공하는 남자학생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남자라서 특별함과 다름이 아닌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가로 세로 낱말 퀴즈



*정답은 10월 13일 (금요일)까지 소통함에 넣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세로

1.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중 1단계
2. 아동의 발달 단계 중 3단계
3. 가슴 안의 기관, 특히 심장과 허파에 관한 질병을 다루는 외과 분야
4. 콜버그가 제시한 인간의 도덕성 발달 단계

가로

1. 생물의 기능이 나타나는 과정이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생물학의 한 분야
2. 흉막강 안에 공기나 가스가 차는 상태
3. 피부가 붉어지고 작은 종기가 나는 현상
4. 정신 분석의 창시자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제 23대 두드림 학생회